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은 공생이기 때문입니다, 공생!

부처님 길에 제대로 들어서려면

질문 큰스님 법문을 듣다 보니 "세상에 그냥 사는 게 다 부처님 길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부처님 길을 가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지금 이렇게 선원에서 많은 분들이 신행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또 이게 다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음공부를 하는 저희들이 부처님 길에 제대로 들어서기 위해서 어떤 실천이 필요한 것인지, 그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부처와 나와 둘이 아니다."라고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법당에 들어오면 부처님의 모습이…, 노래도 있죠? '일체제불의 마음' 그 노래를 가만히 들어 보면 거기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요만한 거라도, 법당에 들어와서 일체 모든 예의를 갖추는 것도 그렇고,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모두 갖춰야 되거든요. 노래고 예법이고 모든 거를요.

그러니깐 부처하고도 둘이 아니요, 모든 사람하고도…. 모습만 달랐다 뿐이지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은 공생이기 때문입니다, 공생! 생명은 다 똑같죠? 벌레의 생명도 생명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공생이고 모두 모습은 달라도 마음은 같단 얘기예요. 잘하든 못하든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깐 공심이고요. 공체라는 건 모습은 다르나 체는 다, 삶에 의해서 살고 있는 체가 다 있으니까, 하다못해 물에서 노는 고기도 체가 있으니까 공체다 이겁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우리가, 전체가 어떠한 물건이든지 다 먹고 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이다 이겁니다. 어떤 거든지 다 움죽거리고 하니까 공용이고, 내 몸으로부터도 더불어 같이 공용이고 또 공식화하고 있어요. 왜냐? 몸뚱이 속에 생명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내가 어떤 걸 먹었을 때 내가 먹었다고 하며,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주장자의 영원한 자기의 근본에서 자기 몸을 움죽거리게 리드하고 가는데 어떤 거 먹었을 때 내가,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걸 했을 때 어떤 걸 봤을 때, 어떤 걸 들었을 때에 내가 들었다, 내가 봤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다, 몸뚱이가 공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 하는 것도 공식이죠. 그래서 "가는 거 잡지 말고 오는 거 막지 말아라." 그러는 것은 모든 것이 둘 아닌 까닭에 그런 것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특히 더 그렇게 해야 하고요.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진리가 본래 그러한 겁니다. 그대로 당신이 당신대로 있지 않고 전부가 더불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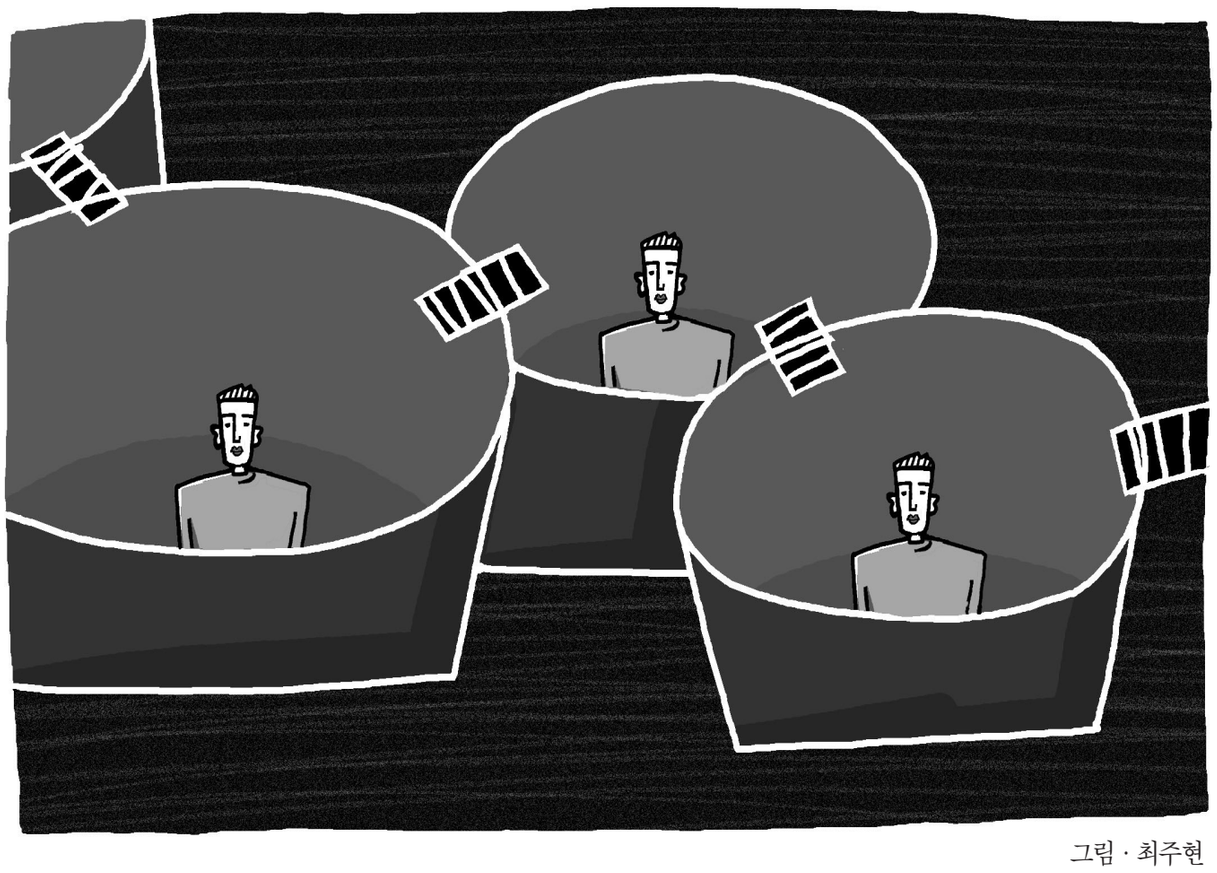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삼재를 초월하는 방법은

질문 사업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잘 아는 분한테 여쭸더니 삼재가 들어서 그렇다고 하시던데 과연 삼재라는 게 뭔지요. 그리고 그런 것을 초월하는 방법이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리가 삼재라는 거, 팔자 운명이라는 거, 또는 영계성, 업보성, 유전성, 인과성, 세균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만날 들어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요. 그것은 없는 것을 애기하는 게 아니라 당장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것이 모두 합쳐져서 나오는 거를 '삼재가 어딨느냐? 과거 · 미래 · 현재가 둘이 아니고, 내 몸뚱이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의식들도 둘이 아니고, 모두 안과 밖을 다 조복했는데 뭐가 있으랴.' 이렇게 인제 생각이 드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냥 삼재팔난이고 뭐고 간에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입력이 돼 버려요. 그럼 삼재가 없다고 그러면 없는 거예요.

왜, 컴퓨터에 입력해 놓은 거 입력해 놓은 대로 나오지 딴 말 나오지 않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팔자 운명도 붙지 않고 삼재도 붙지 않고, 그냥 어디 산길을 걸어갈 때도 산에 나무들, 돌들, 흙들 전부 자기편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받들고 다치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소심하게 팔자 운명이나 삼재 이런 거는 생각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가 팔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자라서,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행하고, 생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나온 거지 팔자 운명이라고 이름 짓지도 않는 게 좋겠죠. 자기가 마음 쓰는 대로 아주 살기 좋게끔 될 수도 있고 자기 생각 때문에 악으로다가 그냥 떨어지는 수도 있어요.

예전에 원주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요, 자식을 낳았는데 반은 고양이고 반은 사람이 된 것을 낳아 가지고 땅에다가 묻고 왔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예전에는 금반지를 잃어버리면 고양이를 시루에다 쪄서 그게 도는 대로 그 사람이 돌아간다고 해서, 고양이를 갖다가 또 시루에다 찌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고양이가 그냥 뜨거워서 비비 꼬이는 대로,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집 자식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모두가 생각하기에 달려 있고 능수능란하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살리는 길이죠. 자기 조상들을 살리고, 자길 살리고, 자기 자녀들을 살리고, 3대를 살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6대 7대까지, 12대 종손까지 다 건지게 되면 그때는 확 터져서 이 세상을 다 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면 "스님은 왜 그럼 못 건지느냐." 그럴는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손오공처럼 아무나 그냥 잘못한다고 톡톡 때리는 게 부처님 공부가 아니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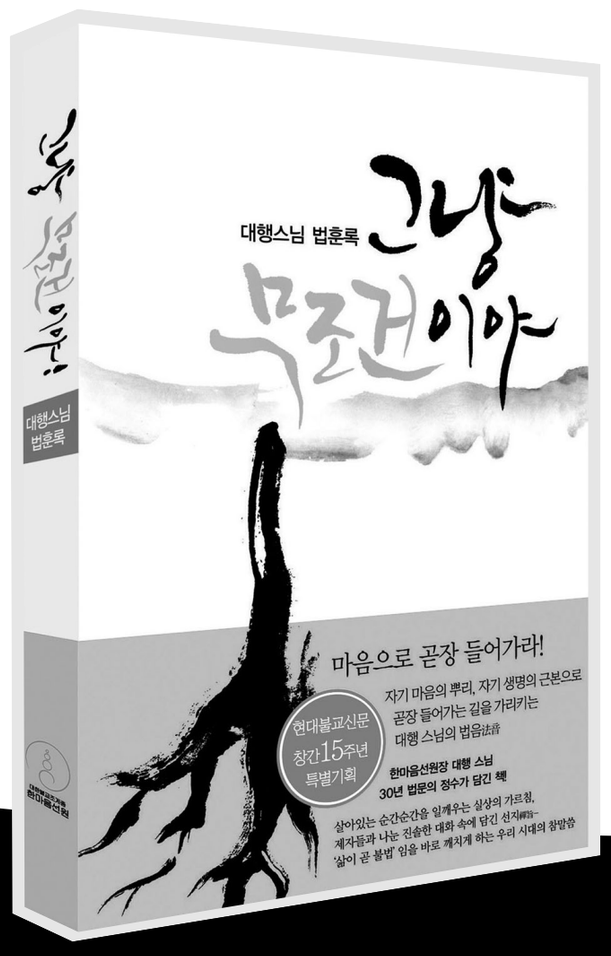
참된 공부가 아닌 것 같은데…

질문 마음의 도리를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주위에서 공부해 나가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된 공부가 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진짜 자기의 근본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문제나 또는 자기 가족들 문제 등 자기한테 닥친 그런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만 마음을 내고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욕심이고 기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은 참된 마음공부가 아닌 거 같아서 혼란스러울 때가 좀 많습니다.

답변 기복이라기보다는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누가 늙어서 죽는다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남 걱정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급해서 부지런히 길을 간다면 옆에서 싸운다, 옆에서 나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그냥 급하게 달려가지, 여기저기 참섭하고 급하게 지금 가서 일할 거를 폐지시키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럼 한번 극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죽으려고 깔딱깔딱하는데 옆에서 잘못하고 잘한다고 그거 참견하게 생겼느냐고요? 우리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하느냐 하면, 자기가 나왔던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구멍에다가 자꾸 관하니까 거기에서 자꾸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 힌트를 주고 어떤 때는 잘되게 했다가 안되게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되게 하는 거를 그대로 '안되게 하는 것도 너다!' 그러고 거기다가 놔야 됩니다. 그

☞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우리는 지금 살아서 저승길을 공부하는 거예요

☞ 25면에서 계속

게 굴려놓는 거거든요. '안되게 하는 것도 너니깐 되게 할 수도 있잖아!' 하고 거기다 놔야 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를 다 놓고 자기가 그냥 지금 현재의 생활을 판단해 가지고, 자기 분수도 생각해서 거기다 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도 빠질 게 없어요.

그런 거를 여러분은 남이 그런다고 하는데, 남이 그러기 이전에 여러분이 남 걱정 하는 것도 끄달리는 거거든요, 그게.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참견을 할 수가 있겠어요? 죽어서 지금 저승엘 가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고요 모든 거를, 보기에 안되는 거 같고 보기에 좀 트릿한 거 같고 또 못나게 보이고 그러더라도 '어, 내가 전자에 그렇게 못났을 때의 내 모습이로구나.' 하고 자기 탓으로 돌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서 저승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그걸 잘 알게 해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서 저승길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물질세계에 살면서 사는 거는 다 알았으니깐 저승세계에 들어가서 알아야, 양면을 다 둘 아니게, 삼세를 둘 아니게 다 알아야 내가 누구를 건져 준다, 뭘 한다 하죠. 지금 신도님들도 그냥 그대로 믿고 그대로 옆의 사람, 꼭 이거는 돌봐 주지 않을 사람이나 돌봐 줄 사람이나 자기한테 인연이 되는 사람한테 그렇게 관해 주고, 또 일러 줄 수 있는 사람에겐 관하라고 일러 주고 그러지 못할 사람에겐 그냥 관해 주고 하는 거죠. 오다가다가도 그렇게 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아유, 당신이 일러 줘서 참 감사했다." 하기도 하고 "아유, 나았다." 하고, 잘됐다 하고 감사하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아주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런 소리도 또 안 하죠. 그렇지만 남을 건진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두 아픈 사람이든 극난에 빠져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을 위해서만도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괴로워서 자기 편안하자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괴로워서 괴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깐 말입니다. 그게 부처님 법이에요. 그게 부처님의 공법이라고요. "부처님 공법이 있고 우리는 없나?" 그러지만 벌써 우리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하나하나가 다 공법이에요. 그 많은 생명들이 다 한데 더불어 같이 살면서 같이 행하니까 공법이죠.

잠을 자면서도 참선하려면

질문 저는 어떻게 하면 잠자면서도 참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불현듯이 아, 잠자면서도 내가 자는 게 아니고 주인공이 잔다고 생각하고 자면 그게 24시간 다 가동이 되는 거 아닌가? 여태까지 궁금했는데 그게 바른 깨달음인지요.

답변 깨달음이라는 소리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느꼈다 이거지, 깨달음이라는 그 언어는 아무 데나 함부로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잠자면서도 뭐가 어떻게 가동이 된다고 하는 건, 몸은 바로 내 마음의 수레입니다. 끌고 다니는 차나 마찬가집니다. 차는 세워 놓고 주인은 나가서 이 일도 보고 저 일도 보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차는 세워 놓고 나가서 이 일도 보고 저 일도 보듯이 꿈에, 꿈꿔 보셨죠? 그러면 몸뚱이는 재워 놓고 자기는 나가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꿈이 생시고 생시가 꿈이니 바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지고, 차를 끌고 다니든 차를 세워 놓고 다니든 여러분이 다니는 건 똑같아요. 몸을 끌고 왔든 몸을 세워 놓았든, 당신 마음들이 다니는 거지 육체가 다니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마음에 의해서 따라다닐 뿐이죠. 따라다니다가 마음이 쉬면 몸도 쉽니다. 그래서 저녁에 '자는 시간이다' 하고 자니까 자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지 않아요. 자기 몸은 잔다 할지라도 자기, 즉 말하자면 유전자라고 할까요? 하여튼 혼백은 자지 않습니다. 영혼은 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낮에도 잔다, 안 잔다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쉬면 가만히 있는 거고, 부처고, 마음을 냈다 하면 법신이다, 활용. 즉 말하자면 마음을 냈다 하면 법, 능력이고 몸이 움죽거렸다 하면 활용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불이 켜졌다 꺼졌다 이런 언어도 붙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얘기 하나 할까요? 어떤 나라에서는 불이 항상 켜져 있거든요. 그 나라에서는 이렇게 밝았다가 컴컴했다 이러질 않고 항상 그냥, 캄캄하지도 않고 항상 밝지도 않아요. 그러니깐 뭐, 전깃불은 항상 켜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거기는 '전기가 나갔다 들어왔다 뭐, 꺼졌다 켜라, 꺼라' 이런 언어가 없답니다. 그런 데 가서 만약에 우리가 "아이, 불은 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 언어 모릅니다. "불을 켰으면 좋겠다." 해도 모릅니다. 그렇듯이 영원한 자기의 근본적인 자기 실(實)은 참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근본은 켜졌다 꺼졌다 이러는 바도 없다 이 소립니다. 예전에 열쇠로, 자물쇠로 비유를 했는데요, 자물쇠는 자물쇠일 뿐이에요. 그리고 에너지가 있으면 에너지일 뿐이고 기름이면 기름일 뿐이에요. 갖다 쓰는 것은 운전수가 갖다 쓰게 되죠. 기름일 뿐이지 기름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쓰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쓸 뿐입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능력은' 하는 것은, 온 누리의 우주간 법계가 다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그 말 자체는 전부 공해서 공력이 바로 그렇게 무수하다는 얘깁니다. 쓰고 안 쓰는 거는 여러분에 달려 있는 거지 부처님의 능력이 없다 있다가 없습니다. 늘고 줄어드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밤에 자기를 재워 놓고 돌아다니는 나의 그림자의 또 그 마음의 그림자, 이것도 그림자고 그것도 그림잔데 이거 그림자의 또 그림자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서,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밤중에 다니거든. 그런데 자기가 또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낮에도 다니거든. 이것도 자기가 만들거든요. 형성시킨 거니까. 진화돼서 창조를 시키는 것도 자기의 근본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지금 유전공학을 하는 데도 유전자가 없으면 그것은 물질로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떠한 물질도 변화를 시킬 수 없고 만들 수도 없고, 크게 만들 수도 없고 작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근본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 있기 때문에 모든 것, 종교도 가지고 있고 나쁘다 좋다 하고 싸우면서 이렇게 살고, 즐겁다 사랑한다 이런 문제 등 모두 여러 가지가 붙지, 모두 여러분 각자 내가 없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 근본으로 인해서 모든 게 생기는 거니까 이 진리가 이렇게 쉴 사이 없이 돌아가듯이, 여러분이 자고 깨고 자고 깨고 반복하는 이 생활이 그대로 진리며 그대로 참선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잠잘 때도 쉬지 않고, 자지 않을 때도 쉬지 않고, 항상 자는 것도 참선이요 이렇게 깬 것도 참선이요, 먹는 것도 참선이요 똥 누는 것도 참선이요, 모든 게 참선 아닌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참선이 끊어집니까? 끊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끊어졌다고 하니깐 끊어진 거지 아니, 살림살이가 그냥 끊어진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끊어졌습니까, 어디? 그냥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탑돌이를 할 때도, 여러분이 탑인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탑을 만들어 놓고 탑돌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탑을 만들어 놓고 탑돌이를 하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날 탑돌이를 하고 계십니다. 이리로 왔다 저리로 갔다, 쌀 푸러 갔다 똥 누러 갔다…. 그게 탑돌이 아니고 뭡니까? 가서는 또 죽었다고 해요. 죽었는데 또 그것이 또 돌아서 나오니, 뭘로 나오든 말입니다, 인간의 씨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돌다 보면 항상이지, 어디 끊어지는 데가 있습니까? 이 도리를 아시란 말입니다. 이해만 하고 이론적으로 알기만 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는 그 자체를, 바로 모든 것을, 일체 나쁘고 좋은 것을 다 자기 주인공에, 공(空)에서 나온 거 공에다 놔라. 맡겨 놓고 믿어라. 지켜봐라. 그러면 홀연히 참이라는 게 거기서 흘러서…. 그 생명수의 맛이라는 것은 정말 옆의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천차만별로 요렇게도 맛이 나고 조렇게도 맛이 나고, 이거는 천차만별로 좋은 맛이 나는데 도대체 그 맛은 정말 얻다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하느냐 하면
자기가 나왔던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좌선을 하고 앉아서 참선한다는 것만 참선이 아닌 줄 아셔야 됩니다. 눈 하나 깜빡거리고 이렇게 도는 것도 참선이에요, 다. "변소에서 어떻게 부처님 생각을 합니까?" 이러는데 아, 자기가 변소에 있으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 해가 똥구덩이에는 안 비칩니까? 똥구덩이라고 요렇게 돌아서 깨끗한 데로만 해가 가겠네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더 이상 살생하고 싶지 않아요

질문 스님, 저의 집에 쥐라는 녀석이 자꾸 귀찮게 굴어서 약을 놨더니 그걸 먹고 쥐가 죽었습니다. 근데 불법을 공부한다면서 살생을 했다고 생각하니 자꾸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살생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쥐가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될는지요?

답변 이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서 밭에서 일하다가 지렁이를 밟아 죽였다 한다면 지렁이 무명만 쳤을 뿐이지 그게 죽인 게 아니거든요, 그냥 놓는다면 말입니다. 지렁이가 바로 자기니까요. 그런데 '내가 죽였으니까 이거는 불쌍해서 어떡하나.' 하고 둘로 보고 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끔 만들어 놓는 겁니다. 지렁이가 또 지렁이가 되게 만들어 놓는 셈이나 똑 같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좀 너그럽고 지혜 있으면 그 지렁이도, 지렁이의 마음도 넉넉하고 지혜가 있어서 스스로 잘될 것을, 내가 구차하게 마음을 먹으니까 그 지렁이조차도 구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생이라고 걸리지 마세요, 그것도. 그러면 그 쥐라는 무명을 못 벗어요. 아시겠어요? 거기 걸리면 안 돼요, 하여튼. 왜 저, 발이 많은 그리마 있죠? 그게 하나라도 걸리고 갑니까? 다리가 그렇게 많은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도 걸리지 않고 가다가도 "넌 다리가 그렇게 많은데 하나도 걸리지 않고 가는구나." 한다면 그만 못 가고 맙니다. 그게 생각 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애들이 정히 날뛰면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기고 그렇게 하셔야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왜 양단간에 좋은 일이냐 하면요, 개도 잘 기르는 것만 안다면 무명을 벗지 못해 가지고 그냥 차 오는 데로 막 뛰어듭니다. 자기가 생명이 자꾸 연장이 되면 그 모습을 벗지 못하거든요. 그런 까닭에 부처님께서는 모든 짐승들을, 어쩌다가 죽이는 경우가 생긴다 해도 살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외려 건진다고 그러셨거든요. 모습은 밟았으나 그 밟힌 인연으로 인해서 그 모습이 화해서 딴 모습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깐 죽여도 건지는 거고 살려도 건지는 게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 선지식들은 소 한 점을 먹어도 소 한 마리의 무명을 벗겨 줬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래서 눈 뜨고 귀 뜨인 사람한테 그 한 점 돌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쥐가 날뛰고 그런다 하더라도, 쥐도 영물의 짐승입니다, 무명을 정말 벗겨 주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쥐를 죽이기 싫으면 죽이기 싫은 대로 "얘들아! 아니, 사람 사는 데 들어와서 이렇게 귀찮게 굴면 어떡하느냐? 그 좀, 사람 귀찮지 않게 할 수는 없느냐?" 하고 누누이 말해 보세요. 그러면 쥐도 알아듣거든요.

그러니 이 공부라는 것은 어느 지렁이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어야 될 거예요. 이거는 하치 못한 생명이니까 그냥 이렇게 버리는 그런 마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그 어떤 모습도 둘이 아닌 내 모습으로 보고 그 자리에 몽땅 다 놔 버리세요. 뭐 그렇게 걱정이 많습니까.